

“울적 올라오는 울음을 미소로 다독여주는 영화”

김정숙 교수의 필름에세이

육상호 감독 ‘3일의 휴가’

‘내가 죽고 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을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는 나에게 어떤 말을 전하고 싶어 할까...’ 영화 ‘3일의 휴가’ 시나리오의 유영아 작가의 이런 상상력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하늘에서 백일장 입상을 한 복자(배우 김해숙)는 하늘에 오른 지 3년 만에 이승을 방문할 수 있는 특별휴가를 받는다. 저승사자 또는 천사라 할 수 있는 가이드(배우 강기영)의 도움으로 그토록 보고 싶은 딸을 찾아보기로 한다. 미국 UCLA 교수인 딸 진주(배우 신민아)를 3일 동안 지켜볼 수 있다니, 부푼 가슴을 안고 미국 캘리포니아 우크라인가 하는 데에 갈 줄로 기대한다.



‘3일의 휴가’.

(주)쇼박스 제공

그리움과 원망이 뒤얽힌 엄마는 풀 수 없는 난제다. 풀고 싶어도 이제 풀 수가 없는 절망감이다. 그래서 더욱 수학 문제에 매달린다. 정답이 있는 수학은 반드시 풀리니까.

영화를 보다 문득 ‘H마트에서 울다’(2022)라는 책이 떠올랐다. 미국에서 인디 팝 밴드 활동을 하는 보컬리스트이자 기타리스트인 미셸 자우너가 쓴 에세이집이다. 한국계 미국인인 그녀는 엄마를 암으로 잃었다. 엄마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은 세상과 나를 잇는 연결 끈이 사라진 것과도 같은 마음의 무너짐이 일었을 것이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 및 회한을 달랠 길 없던 미셸은 어느날 문득 한국 식 재료를 파는 한아름(H) 마트를 가본다. 그곳에서 장을 보고 엄마가 만들어주던 음식을 기억을 되살려 만들어보다가 엄마와의 연결을 느끼는 새로운 감회를 얻는다는 내용이다. 이 책이 아니라도 어머니 얘기를 할라치면 웬만한 사람 대부분은 속절없이 울적 올라오는 울음을 누르면서 하게 된다. 어머니란 존재는... 신이 모든 이를 다 보살필 수 없어서 어머니를 보내주었다 했다면. 쉘 실버스타인의 그림책 ‘아낌없이 주는 나무’(1964)의 바로 그 나무와도 같다.

영화 ‘3일의 휴가’는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울적 올라오는 울음을 안도의 미소로 다독여주는 ‘드라마 치유’와도 같은 귀결을 보여준다. 독서 치료,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처럼. 객석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몇 곳에서 났다. ‘살아 계실 적에 부모에게 잘해야지,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해도 늦는다. 부모님은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지 않는다’ 하는 어른들의 말을 화면에 간접적으로 옮겨놓아서였을 것이다. ‘그렇다고 너무 자책하지는 마.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그걸 바라는 게 아니니까.’ 영화 ‘3일의 휴가’는 울고 있는 관객의 등을 토닥이며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복자가 남긴 노트의 글이 오랫동안 잔상으로 남는다. ‘내가 니를 이자뿌려도 니가 날 찾아도.’ 먹먹한 한편 따사로운 기운을 주는 영화다.

백제예술대학교 명예교수

PRODUCTION
DIRECTOR
CAMERA
SCENE
TAKE

발언대

김덕형

무안경찰서 몽탄치안
센터장·경감



눈은 겨울철의 대표적인 낭만거리이지만 눈길을 헤치고 운전해야 하는 운전자들의 입장에서 그리 달가운 소식만은 아닐 것이다. 운전자라면 눈길 운전은 항상 극도의 신경을 써야 하는 탓에 스트레스도 이만저만 아니다. 겨울철 뜻하지 않은 눈길 또는 빙판길 운전 중 노면이 미끄러운 탓에 차가 균형을 잃으면서 이리저리 핸들조정이 되지 않을때의 아찔함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것

겨울철 우레탄 주차장 진출입 조심

이다.

눈길 운전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면 특히 주의해야 할 장소가 있다. 바로 아파트 주차장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등의 시설내 주차장의 반짝반짝 빛나는 녹색 우레탄으로 코팅 시공된 주차장을 드나들 때이다. 특히 눈비가 올때는 주차장 입구가 미끄러워 제일 위험한데 그 이유는 차량바퀴에 물기가 젖어 우레탄으로 시공된 주차장에서는 그야말로 스케이트를 타는 것과 같은 모양새가 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어떤 때 보면 주차장에서 무슨 급한일이 그리 있는지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운전자도 종종 보게된다. 바닥이 우레탄으로 코팅되어 있어 급제

동을 하더라도 생각대로 통제가 잘되지 않을수 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또한 지하철 공사 현장 위에 깔아둔 철재 복강판과 같은 곳도 우레탄 코팅 주차장과 마찬가지로 미끄럽기 때문에 같이 신경을 써야할 필요가 있다. 겨울철 안전운전 요령을 상기해 두면 그 마음만으로도 사고는 크게 줄일수 있다. 주차장 진입 속도를 최대한 줄이고 과도한 브레이크와 엑셀 사용은 피해야 하며 핸들링도 최소화 하는것도 우레탄 코팅 주차장에서의 미끄러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올해도 과거에 했던 실수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기고 안평환 광주시의원

전·일방부지 개발 그리고 남은 과제



북구 임동이 주목받고 있다.

정체되어 있던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더 현대 광주’라는 복합쇼핑몰 입점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가 추진하는 복합쇼핑몰은 단순한 쇼핑 공간이 아닌 쇼핑과 컨벤션, 관광, 문화, 예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랜드마크를 말한다.

복합쇼핑몰이 입점할 부지는 근현대 산업 문화유산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전일방부지로 광주전과 맞닿아 있다.

전체 부지는 축구장 약 42개가 들어갈 수 있는 29만 6,340㎡ 면적으로 일반공업지역이다.

개발을 위해서는 부지의 용도를 일반산업, 준주거, 주거, 자연녹지 등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전·일방부지 개발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0년 4월 부지 개발을 위해 사업자가 ‘협상대상지 선정’을 신청하면서 본격 시작됐다.

그러나 개발을 위해서는 우선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했다.

광주에 유일하게 남은 근현대 문화유산이자 산업 유산을 보존하면서 도시의 미래를 위한 조화로운 개발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시민사회는 23차례의 전문가 합동 TF회의, 시민설명회, 공동위원회 자문을 거쳐 2021년 11월 협상 조건을 마련해 사업자에게 통보했다.

사업자는 협상 조건을 수용했고 같은 해 12월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됐다.

사업자는 광주시의 조건을 반영한 협상 제안서를 2022년 11월 제출해 비로소 사전협상이 시작됐다.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제도는 1만㎡ 이상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에 대해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상호의 권익을 존중하고 신뢰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상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사전협상을 진행하면서 덴마크 회사가 출품한 ‘15분 도시’ 개념을 반영한 ‘모두를 위한 도시(City For All)’를 마스터플랜으로 최종 선정했다. 해당 부지의 밑그림이 완성된 것은 바로 이쯤이다.

필자는 사전협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근대 산업 문화유산으로 재창조를 통한 역사적 가치 제고와 지역사회와 이익 공유 그리고 협상 과정의 투명성에 중점을 두고 활동을 이어왔다.

사업자와 합의를 이끌어 내기까지 1년의 시간이 걸렸다.

당초 올해 6월까지 사전협상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사업자와 공공기여량을 두고 장시간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 11월 토지가지 상승분의 54.45%인 5,899억원으로 총 공공기여량을 합의해 사실상 협상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협상실무단은 전일방부지 보전과 개발이라는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물밑 노력을 통해 사업자와 광주시의 협상을 이끌어 냈다.

주민과 시민사회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제시된 요구를 반영해 나갔다. 이번 사전협상은 타 사례와 비교해도 기간이나 규모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쌍촌동 호남대학교 캠퍼스의 경우 약 2년여의 기간이 소요됐으며 전체면적 6만 4,116㎡의 교육부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공공기여금 242억 원을 기부받는 조건으로 협상이 마무리됐다.

사전협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전·일방부지 개발이 추진된다.

사전협상 결과를 토대로 지구단위계획이 입안되면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 의견 청취, 전략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성 검토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게 되고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주시가 최종 결정 고시하게 된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과 발맞춰 복합쇼핑몰 건립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우선 사업자로부터 받게 될 공공기여량의 합리적인 사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또, 신세계 백화점 확장과 맞물린 주변 개발에 따른 교통혼잡 해결 방안도 나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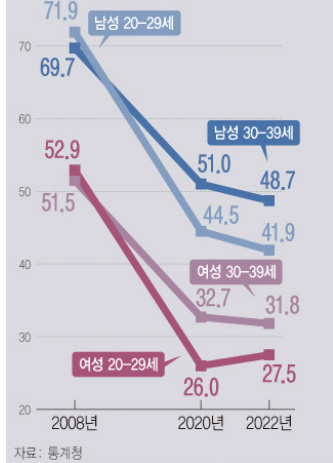
끝으로 개발에 따른 이익이 해당부지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내에서 선순환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을 포함해 사회적 가치 환류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래픽으로 보는 세상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태도

결혼은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한다’ 혹은 ‘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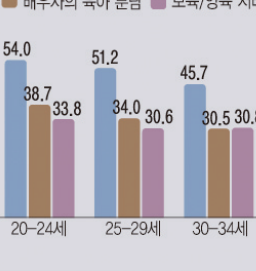
30~34세 기혼여성의 자녀수

■ 이상지녀수 ■ 출산지녀수



출산 결정시 고려사항

■ 가정의 경제적 여건 ■ 배우자의 육아 부담 ■ 보육/양육 서비스 이용 가능성



자료: 통계청



호남 최고 정론지
전남일보

PC와 모바일에서 만나 보세요

www.jnilbo.com
m.jnilbo.com
facebook.com/jnilbo
구독문의 (062) 510-0471
광고문의 (062) 512-0100